

제2차 참여정부 국정토론회

공직사회의 선도적인 혁신은 실천을 통하여만 검증됩니다. 또한 국민 합의를 위한 의제 설정과 그 통합의 사회적 과정을 정부가 주요하게 이끌어 가야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기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분이 참 좋습니다. 저도 자주 우울한 일에 부딪칩니다. 그런데 금방 잊습니다. 비결은 한창 우울하다가도 여러분 일하는 모습 보면서 함께 토론하고 일하며 잊어버립니다. 걱정도 그렇게 잊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 중에 가장 보람찬 일이 학습하는 일입니다. 토론, 학습할 때 새로운 희망을 느낍니다.

이번 워크숍에서 하려는 것은 두 가지 정도입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는 거고 수단은 혁신입니다. 우리 국가가 혁신돼야 한다고 하는데 국가가 혁신이 안 되면 공직사회가 먼저 혁신해야합니다. 공직사회 혁신은 안하고 국가가 먼저 혁신되길 바라기 어렵습니다. 혁신을 앞장서서 이끌어 나간다는 목표달성위해 우리 스스로 혁신해야합니다. 공직사회의 혁신을 위해 모였습니다. 혁신에서 가장 중요한건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되고 실천해야합니다. 혁신을 일상화하기 위해선 혁신을 위한 학습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바쁘다는 이유로 혁신위한 학습이 부실하다는 아쉬움을 느낍니다. 일상적 혁신과정 개발해서 각 부처별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부처에서 업무혁신 모범사례 많이 나와 있어 기쁩니다.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

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학습사례는 보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습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사회적 의제를 우리 정부가 어떻게 참여하고, 주도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국가가 어디로 갈 것이냐를 정할 때 누가 합부로 정하지 못합니다. 그렇게는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진로결정하기 위해서 사회적 의제설정이 되고 의제를 중심으로 토론하고 국민합의 모아서 방향을 향해 가게 됩니다.

의제 설정기능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회에 있습니까, 정부에 있습니까, 시민사회에 있습니까, 언론에 있습니까. 의제 설정 바람직한 방향은 대개 일치 하는 게 가장 좋을 것입니다. 분산돼있고 통합하는 사회적 기능이 없다면 우리사회 방향을 정하기 어렵고 정책추진하기 어렵습니다. 의제를 어떻게 통합하고 정부가 어떤 기능을 할 것입니까. 정부는 국가진로에 대해 그날그날 해야 할 정책에 대해 국민의 수임을 받은 조직입니다. 이 조직이 의제설정에서 배제돼있고 정부가 중요하다고 하는 의제가 국민에게서 배제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해봅시다.

지난 87년 6월 항쟁 이전까지 적어도 정부권력은 국가권력으로서 자율권을 가졌습니다. 권위적이든 민주적이든 정부가 결정하면 그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 이후 정부가 국가방향주도의 힘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자율권이란 부분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운영관 외 교장관이 대학교수 때 쓴 책 가운데 국가, 정부의 자율권을 분석한 책이 있습니다. 만일 그 상태가 아직 계속되면 이것은 심각합니다. 국민선거로 선출된 국회가 ,정부가 국정주도의 힘을 상실하고 자율성 상실하고 타율적으로 이끌리면 선거, 민주주의 기능이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며 이번 워크숍 진행합시다. 열심히 참여해주고 각 부처 전공무원에 향상된 계기 제공하고 전 공직사회가 국민에게 해야 할 봉사를 다 할 수 있는 학습문화 만드는 토대를 바랍니다. 힘들겠지만 열심히 합시다.